

7-18-2010 주간 메시지

성서: 시편 144:1-15

본문: 고린도전서 15:51-58

제목: 몸의 부활(Translation: Rapture)의 신비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5,14)고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내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 5:39,40)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의 주제가 말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소망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함 소망이 되는 것이다. 죄의 몸의 수명이 칠십이며 강건하면 팔십이라고 모세는 기도하며 말했다 (시 90:10).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몸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되었으며 사람의 본체는 살아있는 혼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창 2:7). 그러나 죄로 인해 생명의 호흡이 없어지면서 사망이 오게 되었을 때 사람의 육신은 늙어가면서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게 되어 육신마저도 죽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여 사망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죄와 사망을 가져온 옛 뱀인 마귀에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창 3:15)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선포하셨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곳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히 2:14,15) 또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도 같은 말로 증거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요일 3:8)

주님께서도 마귀가 하는 일과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요 10:10,11)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을 헛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음을 선포하셨다: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고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 45:18)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에게 죄를 가져와 헛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이다. 이 땅과 모든 만물들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기에 (창 3:17)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과 만물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사실에 대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날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요 5:24)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방해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람들과 땅과 만물들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분의 공의의 법에 따라 회복하시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그의 선지자들과 아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 모든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딤후 2:4)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다시 죽은 몸 안에 들어가셔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죽은 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또한 살아있는 혼도 죄 때문에 하늘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타는 감옥인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었지만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기에 파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나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요” (시 103:4)라고 증거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영광이 회복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회복될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죽을 몸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는 소망에 대해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으로 기다리고 있느니라.” (롬 8:21-23)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은 바로 몸의 구속이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을 몸을 벗어나는 것이다. 또 다시 말해서 육신이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죽는 날이다. 주님께서 이 사실에 대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 11:25,26)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며 물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4-18)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신비라고 증거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고전 15:51-53)

그렇다! 죄가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사망이 쓸 수 없으며 무덤도 더 이상 성도들의 몸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이며 주의 일을 넘치게 하여야 할 이유인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므라로 열심히 장사하여 많은 므라를 남겨서 주님 오실 때 열 고을 다스리는 용사들이 되자! 노아는 120 년 동안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의를 전파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을 인내로 견뎠다. 120 년이 지난 어느날 결국 비가 왔으며 그는 구원받았으며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을 복음전파에 다 쏟는다면 해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다. 결국은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을 날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 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뜻을 견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베후 2:4-8).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믿는 자의 부활을 외칠 때 어느날 주님께서 오실 때에 변화되어 죽지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몸을 거룩하고 강건하게 보존하며 노아처럼 인내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자! 할렐루야!

7-18-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44:1-15

Main scripture: 1 Corinthians 15:51-58

Subject: The mystery of the resurrection of body

The word of God testifie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²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³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⁴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⁵And the light shineth in darkness; and the darkness comprehended it not. ...¹⁴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John 1:1-5,14)

Jesus came to the Jews manifested in flesh incarnated from God and the Creator and the Word in the beginning: **"³⁹Search the scriptures; for in them ye think ye have eternal life: and they are they which testify of me. ⁴⁰And ye will not come to me, that ye might have life."**(John 5:39-40)

We can understand the theme of the word of God in the scriptures as the eternal life in the Lord Jesus Christ who is the Word and God the Creator. In other word,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of the dead because of sin is the only hope of the Christians. Moses spoke in his prayer, the days of our years are threescore and ten; and if by reason of strength they be fourscore years (Ps. 90: 10). The body of man was made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the spirit through the breath of the life of God to be the living soul (Gen. 2: 7). When the death came unto man because of sin, the breath of life was taken away; and the body of man was getting old to lose the breath unto death.

When man was unto death because of sin, God spoke unto the old serpent that brought forth sin and death:**"¹⁵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it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Gen. 3:15)

Apostle Paul declared this message again in the Spirit:

"¹⁴Forasmuch then as the children are partakers of flesh and blood, he also himself likewise took part of the same; that through death he might destroy him that had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¹⁵And deliver them who through fear of death were all their lifetime subject to bondage."(Heb. 2:14-15)

Apostle John, the beloved disciple of Jesus also testified again:

"⁸He that committeth sin is of the devil; for the devil sinneth from the beginning. For this purpose the Son of God was manifested, that he might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1John 3:8)

Lord Jesus also testified of the thing to be done by the devil and also his work:**"¹⁰The thief cometh not, but for to steal, and to kill, and to destroy: I am come that they might have life, and that they might have it more abundantly. ¹¹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giveth his life for the sheep."**(John 10:10,11)

Yes! The LORD God declared that he never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all things therein: in vain **"¹⁸For thus saith the LORD that created the heavens; God himself that formed the earth and made it; he hath established it, he created it not in vain, he formed it to be inhabited: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ne else."**(Isa. 45:18)

The Satan tried to mak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all things therein in vain bringing forth sin, but God planned to restore all things unto life from death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to take away the sin that was the reason of all the problems. Since the earth and all things therein had been cursed because of the sin of man (Gen. 3:17), God planned to restore all things delivering from death unto life through solving the problem of sin. Lord Jesus testified of this: **"²⁴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heareth my word, and believeth on him that sent me, hath everlasting life, and shall not come into condemnation; but is passed from death unto life."**(John 5:24)

In spite of the hindrance of the Satan, not destroying the earth and all things therein, God had spoken his words through the prophets and his Son and the Apostles for thousands years to restore them according to the laws of his righteousness. Writing all these things in the scriptures, God wants to save all men and have them come u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1Tim), and have them preach the gospel unto all men. Therefore, when man repents

and receive the Lord Jesus Christ by faith who took away of the sin of the world to forgive them all, the Spirit of God enter into the mortal body to give the breath of life which was given unto Adam to revive his spirit. His soul also is to be saved to the kingdom of God being delivered from the judgment in the hell/ King David understood this, and testified:

"⁴Who redeemeth thy life from destruction; who crowneth thee with lovingkindness and tender mercies;"(Ps. 103:4)

Therefore whosoever believes in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receives the restoration of his spirit and soul to be passed from death unto life. The final thing to be restored is the mortal body.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of mortal body unto the immortal one: **"²¹Because the creature itself also shall be delivered from the bondage of corruption into the glorious liberty of the children of God. ²For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groaneth and travaileth in pain together until now. ²³And not only they, but ourselves also, which have the firstfruits of the Spirit, even we ourselves groan within ourselves, waiting for the adoption, to wit, the redemption of our body."**(Rom. 8:21-23)

Yes! The hope of the children of God is the redemption of the body. In other word, it is to put off the immortal body when we die in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of body. Jesus spoke to Martha, and made a question un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that believeth i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²⁶And whosoever liveth and believeth in me shall never die. Believest thou this?"**(John 11:25-26)

Apostle Paul comforted the saints of Thessalonians for this hope: **"¹⁴For if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even so them also which sleep in Jesus will God bring with him. ¹⁵For this we say unto you by the word of the Lord, that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unto the coming of the Lord shall not prevent them which are asleep. ¹⁶For the Lord himself sha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shall rise first: ¹⁷Then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shall we ever be with the Lord. ¹⁸W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ese words."**(1Thes. 4:14-18)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as a mystery: **"⁵¹Behold, I shew you a mystery; We shall not all sleep, but we shall all be changed, ⁵²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 for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 incorruptible, and we shall be changed. ⁵³For this corruptible must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1Cor. 15:51-53).

Yes! Death cannot sting the sin any more when all sins are forgiven; and the grave cannot hold the body of the saints any more. This is the very reason why we give thanks unto God for giving us the victory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and for being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Let us be the spiritual warrior that occupy ten cities with the pound (mina) given by the Lord to rule ten cities when Jesus come again! Noah preached the righteousness of God who shall judge the world unless they repented with the flood with patience for 120 years. One day after 120 years passed by, the rain came to the earth finally. Noah and his family were saved, and all other people were judged by the flood to death. We cannot preach the gospel too much even though we spend all our life for preaching the gospel, for this world shall be judged by the fire one day in the future finally as the time of Noah. Apostle Peter testified of the day of the judgment: **"⁴For if God spared not the angels that sinned, but cast them down to hell, and delivered them into chains of darkness, to be reserved unto judgment; ⁵And spared not the old world, but saved Noah the eighth person, a preacher of righteousness, bringing in the flood upon the world of the ungodly; ⁶And turning the cities of Sodom and Gomorrhah into ashes condemned them with an overthrow, making them an ensample unto those that after should live ungodly; ⁷And delivered just Lot, vexed with the filthy conversation of the wicked:⁸(For that righteous man dwelling among them, in seeing and hearing, vexed his righteous soul from day to day with their unlawful deeds;)"**(2Pet. 2:4-8)

We shall be changed to put on the immortal body in one day in the midst of preaching the gospel for the resurrection of the believers, when Jesus comes again. Let us preserve our body godly and sound, and dedicate 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as Noah to preach the gospel of life! Hallelujah!